취재·사진 | 이호철 기자

대한장애인볼링협회, 볼링인의 밤 개최

대한장애인볼링협회(회장 장석창)가 지난 2월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'2026년 볼링인의 밤' 행사를 개최했다. 이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볼링 발전을 위해 힘써준 내·외빈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써 장석창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협회장과 임원, 국가대표선수,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및 각계 스포츠 인사들이 참석했다.

행사는 장석창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. 장석창 회장은 "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해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다.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, 사무국은 물론 각 시도협회 및 임원들의 도움이 컸다.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조언과 성원덕분에 장애인볼링협회가 2025년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. 특히 데플림픽에서 볼링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, 성과가 좋았다.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볼링 발전을 위해 활동 및 응원을 부탁드린다."고 감사 및 당부의 말을 전했다. 한편 본 행사는 내·외빈 및 2026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졌고, 이어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됐다.

[1] 성남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행사가 진행됐다.
[2]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사무국 및 임원, 시도협회장이 함께 했다.
[3]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들이 함께 했다.

2026년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볼링인의 밤 화보

[1] 장석창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.
[2]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장영하 당협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.
[3]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선수촌 전선주 촌장이 축사를 전했다.
[4~5] 볼링인의 밤 행사가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진행됐다.
[6]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시도연합회 황인원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.
[7]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전영덕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.
[8] 체육인불자연합 문홍식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.
[9] 2026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을 소개했다.
[10] 특별 초청으로 사인회를 가졌던 김은옥, 최현숙, 김효미, 윤희여 프로를 소개했다.
[11] 대한장애인볼링협회 이상원 부회장이 건배를 제의했다.
[12] 내빈들이 장애인볼링의 발전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.
[13] 전자바이올린니스트 안정현과 가수 서연지가 축하공연을 가졌다.
[14] 행사 진행을 맡은 배우겸 가수 백봉기와 김복희가 축하공연을 가졌다.
[15] 가수 장미소, 인어가 축하공연을 가졌다.
[16] 행사 마지막 공연을 가수 우순실이 장식했다.
[17]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했다.